

韓-인니,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협력 이행 본격화

상반기 'e-모빌리티 센터' 가동
美 IRA 대응... 공급망 구축 논의
수입물량제한, 기업에 지원 요청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뿌리기술 인력양성 등 작년 9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본격 이행한다. 또 유·가스전 탄소포집저장(CCS), 원전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3일~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차관보는 우선 지스만 피라다 후타줄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 면담에서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올해 상반기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가동하기로 확인하고,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광산, 정·제련소 투자 등 안정적인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이어 안디 리잘디 산업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중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한-중동 경제협력 실무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 산업연구개발위원장을 만나 산업 인력 양성, 수입규제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산업부 간 체결한 '한-인니 산업협력 MOU'의 후속 성과로 '크라카타우 포스코(인니)-반퐁 폴리텍대학(인니)-뿌리산업 진흥센터(한국)' 간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그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양질의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차관보는 이와 함께 인니의 수입 물량제한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인니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양 차관보는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 10여 개사가 참여한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 인니 및 아세안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채널 의제 등에 반영해 우리기업이 수출·투자 활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민편의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근로복지공단, 15개 기관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4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애로가 있었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애로가 있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5개 국 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지난 1월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텍스에 연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를 제공했고,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

또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확성 높은 자격 정보를 신속 제공해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편의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민의 주거복지 경쟁력 키워나갈 것"

주금공 사장, 창립 20주년 기념사

최준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사진) 사장은 4일 주택금융공사 창립 20주년 맞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간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공사가 이뤄낸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를 파악하고 기회



를 찾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래 선도를 위해 전사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전세보증 등 주택보증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등 주택 관련 공공금융을 공급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저수지·사업장 등 환경문제 대응 나서

농어촌공사, 'ECO-4U센터' 출범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ECO-4U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ECO-4U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시 '언제, 어디서나' 즉각 응답하는 메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분석, 해결 방안 제시, 사후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환경문제 해결 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건설 현장은 1만6327개소이다. 공사는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전의 지속성을 더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전 세계적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가 증가하

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는 '수질오염 기술지원단'과 '환경평가 기술지원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사 직원을 비롯한 분야별 민간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100여 명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둔 즉각적인 대응과 피해 방지에 초점을 뒀다.

또 전국의 사업 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환경과 관련된 상담, 자문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장 조치 가이드북을 제작해 위기 상황 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더 나은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임무인 만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분뇨·음식물, 바이오가스 탈바꿈

환경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인천·경기광주 등 8개 지자체 선정

환경부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곳에서 신청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정된 8개 지자체는 △인천 △경기 광주 △경기 과천 △강원 춘천 △강원 횡성 △충남 부여 △전남 목포 △전남 순천이다.

인천광역시와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하게 된다.

경기 과천시와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한다. 강원 춘천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한다.

충남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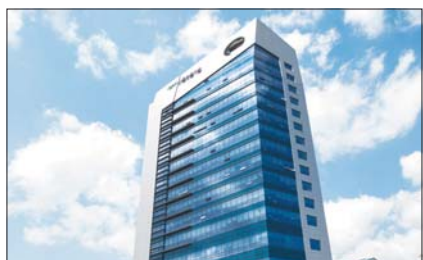
전남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전남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오는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돼, 하루 약 9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상반기 신입 70명 채용 내달 1~15일까지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혁신금융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정보를 사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신보는 입사지원자가 채용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채용분야, 전형 절차 등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사전공고문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는 오는 4월 1일 채용 공고를 하고 같은 달 15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총 70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 채용분야는 ▲ 금융사무(일반) 인재 48명 ▲ 금융사무(지역전문) 인재 12명 ▲ ICT 인재 10명이다.

신보 관계자는 "입사 준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사전공고를 진행하고, 본 채용 공고시에는 채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상세한 영상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